



LA한국교육원, 미국 한국어 교사 대상 수업나눔 연수 성료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우수교사 3명이 'K-Culture 수업레시피' 공개
- 미국 한국어 교사 112명이 참여하여 이틀간 연수과정 수료
- 경북 학생 한국문화 공연과 우수 한국어 교재 전시로 큰 호응 얻어

- LA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월 6일(목)과 7일(금) 양일간 LA한국교육원에서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반 교사와 한글학교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 교사가 알려주는 K-Culture 수업레시피'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발한 우수 교사 3명이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수업법과 수업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미 교사 간 교육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 연수의 시작은 경북 학생 동아리의 한국문화 시범 공연으로 알렸습니다.
 - 영양여고의 자체 제작한 장구를 활용한 국악 공연을 비롯해 기북초의 국악으로 전하는 한국의 정, 문경여중의 부채에 담은 한국의 아름다움, 경북외고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시범 공연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에게 전통과 현대 한국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 연수의 하이라이트인 수업나눔에서는 경북 교사들이 현지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K-Culture 수업레시피'를 공개하였습니다.
 - 임혜랑 교사(상대초)는 전통과 현대의 울림이란 주제로 K-비트 소고난타 수업을, 고예나 교사(대해초)는 보자기와 한국의 색을 활용한 감성 중심 K-보자기 수업을 선보였습니다. 김여명 교사(구미중)는 예술과 놀이를 잇는 한국의 종이 문화를 K-페이퍼 아트 수업을 통해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뿐만아니라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수 한국어 교재 전시회에서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재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 연수에 참가한 Ambassador School of Global Education의 전승환 한국어 이중언어반 선생님은 “한국에서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 학생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한국문화 수업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솔단장인 이용희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장은 “한국과 미국은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학생을 위한 교사들의 열정은 다르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LA한국교육원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 교사와 학생 간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가 미국의 한국어 선생님들께서 새학기 수업 아이디어를 얻고, 각자의 교실에서 새로운 K-Culture 수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연수에 사용된 모든 활동자료와 PPT는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www.kecla.org)을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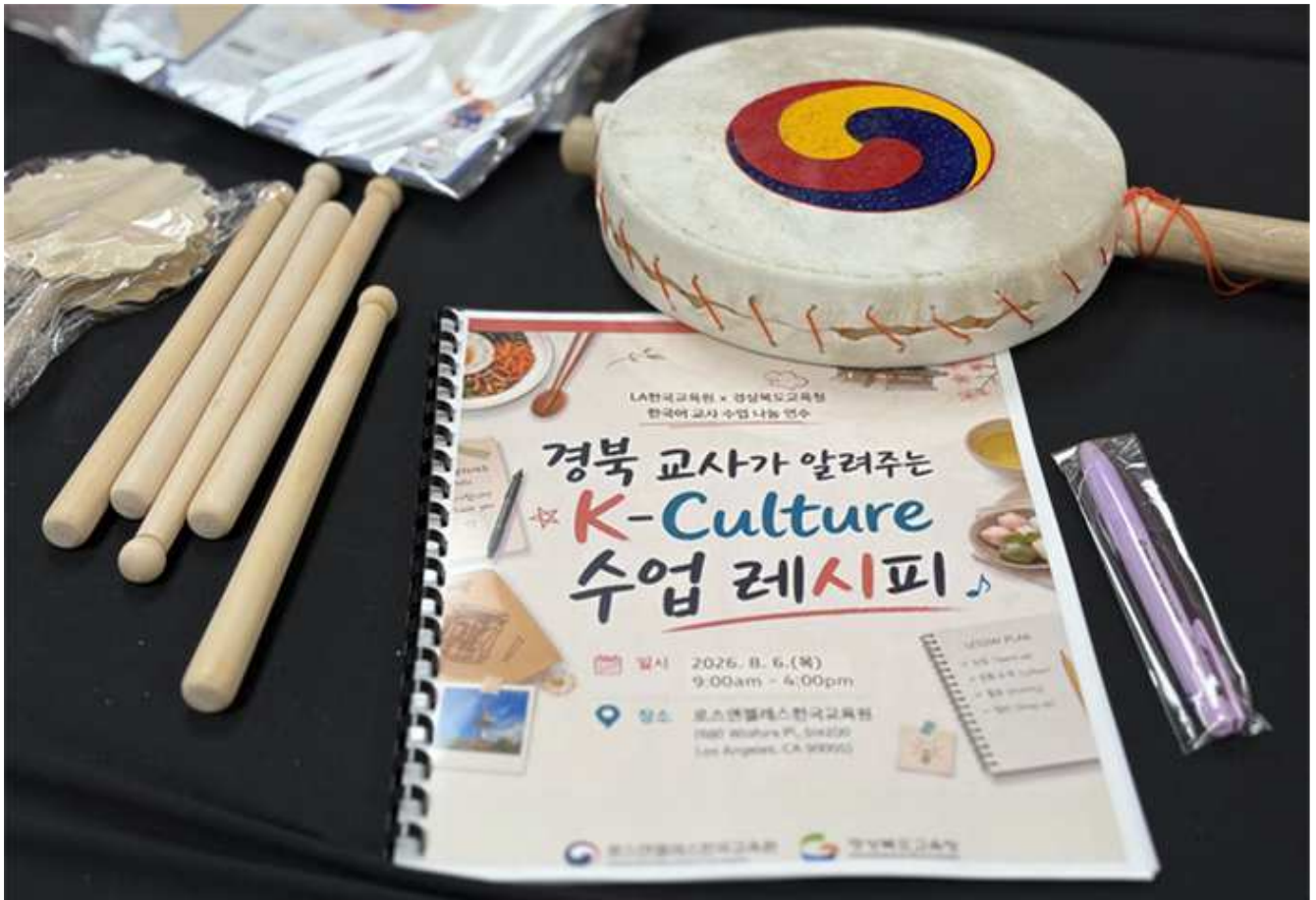
붙임 사진 8부.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담당자	부원장 이상범
		☎ 213-386-3112 (www.kecla.org)

<사진1> LA한국교육원, 경북글로벌교류단, 연수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2> [K-비트] 경북 교사가 알려주는 K-Culture 수업 레시피 교재와 소고난타 교구



<사진3> [K-보자기] 오색의 축복, 손끝으로 피어나는 미래형 K-Culture 수업



<사진4> [K-페이퍼 아트] 천년을 가는 종이, 한지 수업



<사진5> 문경여자중학교 학생 동아리 부채춤 시범 공연



<사진6>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RESONANCE of KOREA」 시범 공연



<사진7> 기북초등학교 학생 동아리 「합창과 국악으로 전하는 한국의 정」 시범 공연



<사진8> 우수 한국어 교재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어 교재들

